

a

+ 예수님 ○ 복음사가 ● 다른 한 사람 ⊙ 다른 몇몇 사람 ⊙ 군중

○ 마르코가 전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기입니다. 14,1-15,47
 <또는 15,1-39>

짧은 독서를 할 때에는 < > 부분을 생략한다.

○ <¹파스카와 무교절 이틀 전이었다.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

은 어떻게 하면 속임수를 써서 예수님을 붙잡아 죽일까

궁리하고 있었다. ²그러면서 “백성이 소동을 일으킬지 모르

니 축제 시간에는 안 된다.” 하고 말하였다. ³예수님께서

베타니아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의 일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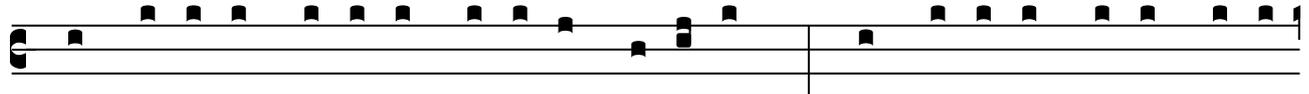
마침 식탁에 앉아 계시는데, 어떤 여자가 값비싼 순 나르드

향유가 든 옥합을 가지고 와서, 그 옥합을 깨뜨려 그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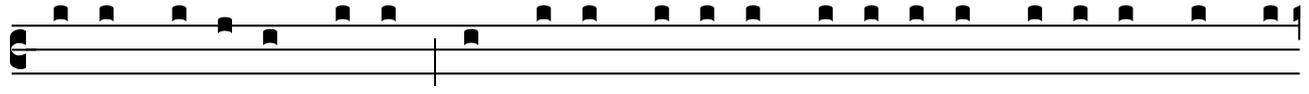
머리에 향유를 부었다. ⁴몇 사람이 불쾌해하며 저희끼리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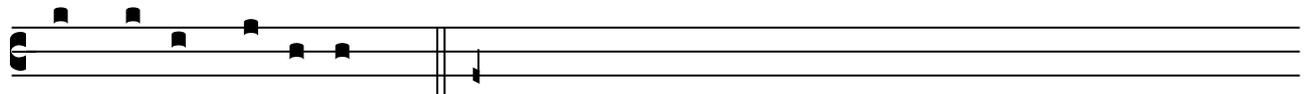
말하면서 그 여자를 나무랐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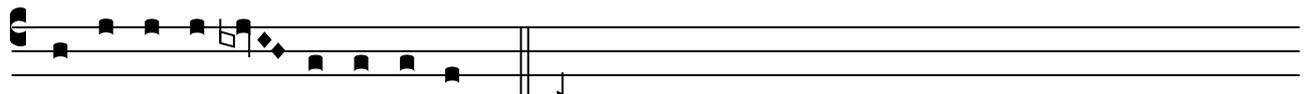
⊙ “왜 저렇게 향유를 허투루 쓰는가? ⁵저 향유를 삼백 데나



리온 이상에 팔아, 그 돈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줄 수



도 있을 터인데.”



○ ⁶예수님께서 서 이르셨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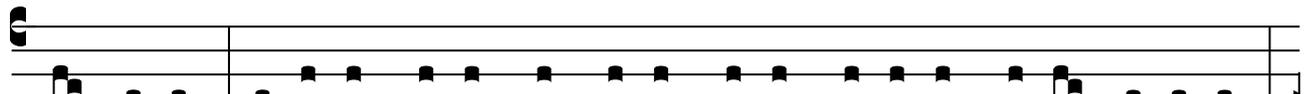
+ “이 여자를 가만 두어라. 왜 괴롭히느냐? 이 여자는 나에



게 좋은 일을 하였다. ⁷사실 가난한 이들은 늘 너희 곁에



있으니, 너희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그들에게 잘해 줄



수 있다. 그러나 나는 늘 너희 곁에 있지는 않을 것이다.



⁸이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다. 내 장례를 위

하여 미리 내 몸에 향유를 바른 것이다. ⁹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.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,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.”

○ ¹⁰열두 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 이스카리옷이 예수님을 수석 사제들에게 팔아넘기려고 그들을 찾아갔다. ¹¹그들은 그의 말을 듣고 기뻐하며 그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하였다. 그래서 유다는 예수님을 넘길 적당한 기회를 노렸다. ¹²무교절 첫날 곧 파스카 양을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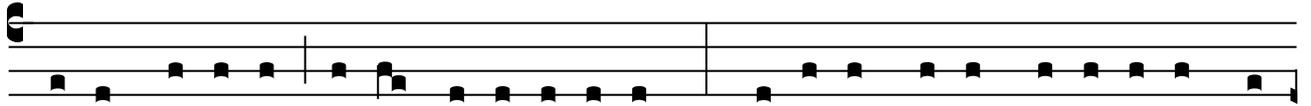
○ “스승님께서 잡수실 파스카 음식을 어디에 가서 차리면 좋겠습니까?”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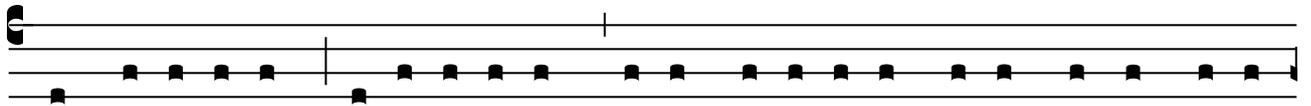
○ ¹³예수님께서 제자 두 사람을 보내며 이르셨다.



+ “도성 안으로 가거라. 그러면 물동이를 메고 가는 남자를



만날 터이니 그를 따라가거라. ¹⁴그리고 그가 들어가는 집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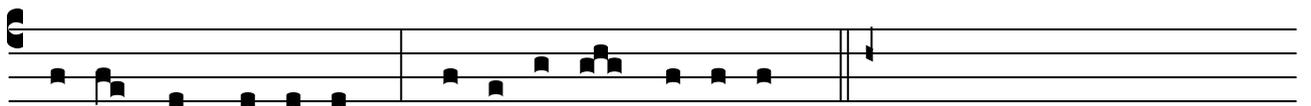
의 주인에게, ‘스승님께서 ‘내가 제자들과 함께 파스카 음식



을 먹을 내 방이 어디 있느냐?’ 하고 물으십니다.’ 하여라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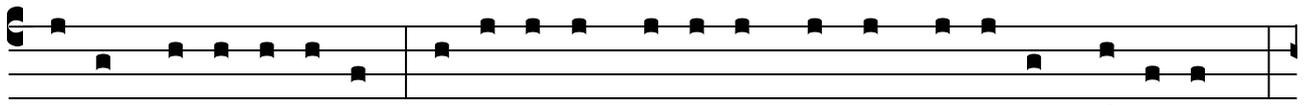
¹⁵그러면 그 사람이 이미 자리를 깔아 준비된 큰 이층 방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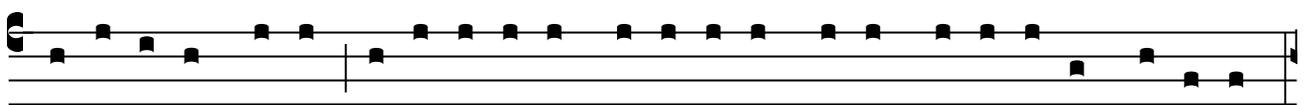
보여 줄 것이다. 거기에다 차려라.”



○ ¹⁶제자들이 떠나 도성 안으로 가서 보니, 예수님께서 일러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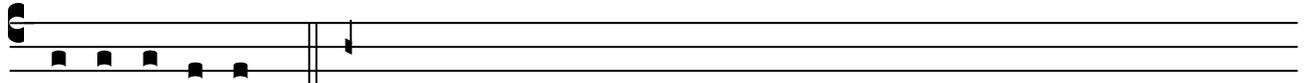
주신 그대로였다. 그리하여 그들은 파스카 음식을 차렸다.



¹⁷저녁 때가 되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곳으로 가셨다.



18 그들이 식탁에 앉아 음식을 먹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서



말씀하셨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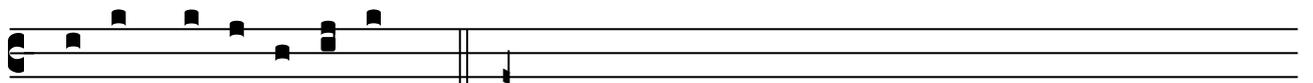
+ “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. 너희 가운데 한 사람, 나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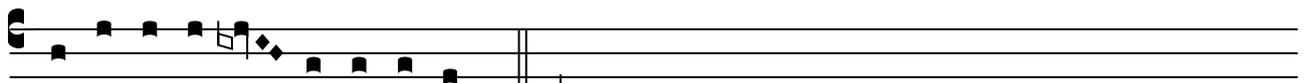
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자가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.”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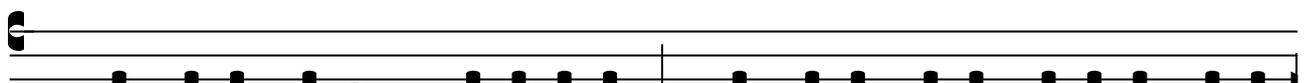
○ 19 그러자 제자들은 근심하며 차례로 묻기 시작하였다.



● “저는 아니겠지요?”



○ 20 예수님께서서 이르셨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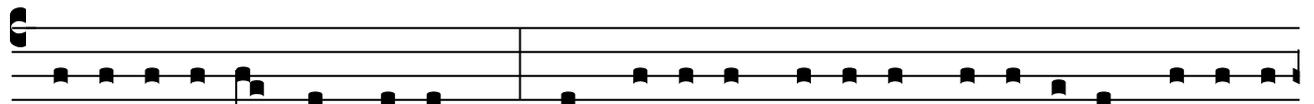
+ “그는 열둘 가운데 하나로서 나와 함께 같은 대접에 빵을



적시는 사람이다. 21 사람의 아들은 자기에 관하여 성경에



기록된 대로 떠나간다. 그러나 불행하여라, 사람의 아들을



팔아넘기는 그 사람!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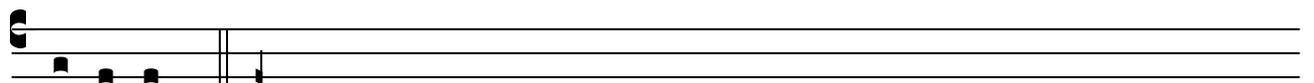


라면 자신에게 더 좋았을 것이다.”

○ ²²제자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빵을 들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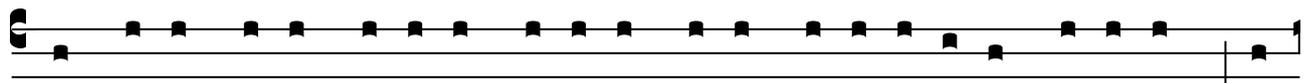


찬미를 드리신 다음,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



하셨다.

+ “받아라. 이는 내 몸이다.”



○ ²³또 잔을 들어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니 모



두 그것을 마셨다. ²⁴그때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.

+ “이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계약의 피다. ²⁵내가



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. 내가 하느님 나라에서 새 포도주

를 마실 그날까지,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결코 다시
는 마시지 않겠다."

○ ²⁶그들은 찬미가를 부르고 나서 올리브산으로 갔다. ²⁷예수님

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.

+ “너희는 모두 떨어져 나갈 것이다. 성경에 ‘내가 목자를

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.’고 기록되어 있다. ²⁸그러나 나

는 되살아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래아로 갈 것이다.”

○ ²⁹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였다.

● “모두 떨어져 나갈지라도 저는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.”

○ ³⁰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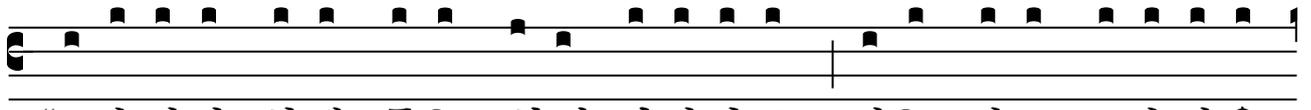
+ “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. 오늘 이 밤, 닭이 두 번 울



기 전에 너는 세 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.”



○ ³¹베드로가 더욱 힘주어 장담하였다.



● “스승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더라도, 저는 결코 스승님을



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.”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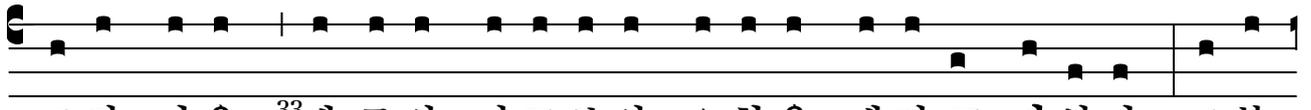
○ 다른 제자들도 모두 그렇게 말하였다. ³²그들은 겟세마니라



는 곳으로 갔다.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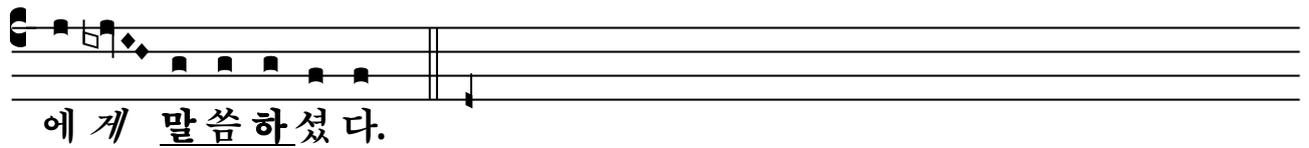
+ “내가 기도하는 동안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어라.”



○ 그런 다음 ³³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다. 그분



께서는 공포와 번민에 휩싸이기 시작하셨다. ³⁴그래서 그들



에 계 말씀하셨다.

+ “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. 너희는 여기에 남아서 깨어 있어라.”

○ ³⁵예수님께서서는 앞으로 조금 나아가 땅에 앞드리시어, 하실 수만 있으면 그 시간이 당신을 비켜 가게 해 주십사고 기도하시며 ³⁶이렇게 말씀하셨다.

+ “아 빠! 아버지! 아버지께서는 무엇이든 하실 수 있으시니,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. 그러나 제가 원하는 것을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십시오.”

○ ³⁷예수님께서 돌아와 보시니 제자들은 자고 있었다. 그래서

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.

+ “시몬아, 자고 있느냐?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란 말

이냐? ³⁸너희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여라.

마음은 간절하나 몸이 따르지 못한다.”

○ ³⁹예수님께서 다시 가셔서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다. ⁴⁰그리

고 다시 와 보시니 그들은 여전히 눈이 무겁게 내리감겨

자고 있었다.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무슨 말씀을 드려

야 할지 몰랐다. ⁴¹예수님께서서는 세 번째 오셔서 제자들에

게 말씀하셨다.

+ “아직도 자고 있느냐? 아직도 쉬고 있느냐? 이제 되었다.

시간이 되어 사람의 아들은 죄인들의 손에 넘어간다. ⁴² 일

어나 가자. 보라, 나를 팔아넘길 자가 가까이 왔다."

○ ⁴³그러자 곧, 예수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에 열두 제

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다가왔다. 그와 함께 수석 사제

들과 율법 학자들과 원로들이 보낸 무리도 칼과 몽둥이를

들고 왔다. ⁴⁴그분을 팔아넘길 자는, "내가 입 맞추는 이가

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붙잡아 잘 끌고 가시오" 하고 그

들에게 미리 신호를 일러두었다. ⁴⁵그가 와서는 곧바로 예

수님께 다가가 말하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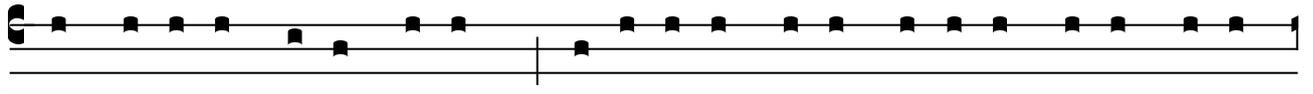
● "스 승님!"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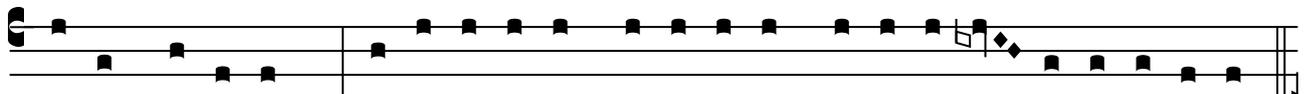
○ 그리고 나서 입을 맞추었다. ⁴⁶그러자 그들이 예수님께 손을



대어 그분을 붙잡았다. ⁴⁷그때 곁에 서 있던 이들 가운데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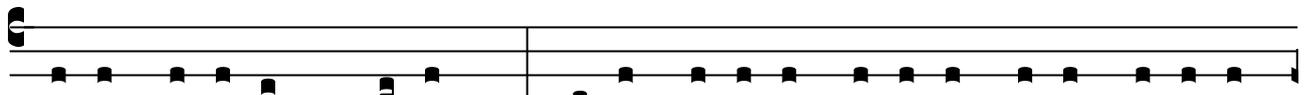
한 사람이 칼을 빼어, 대사제의 종을 내리쳐 그의 귀를



잘라 버렸다. ⁴⁸예수님께서 나서시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.



+ “너희는 강도라도 잡을 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



으러 나왔단 말이나? ⁴⁹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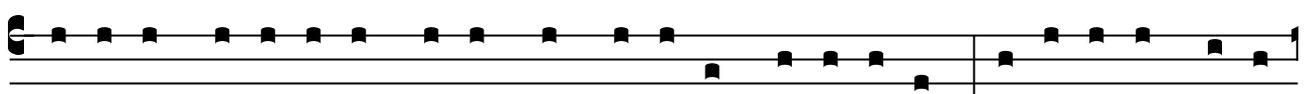
있으면서 가르쳤지만 너희는 나를 붙잡지 않았다. 성경 말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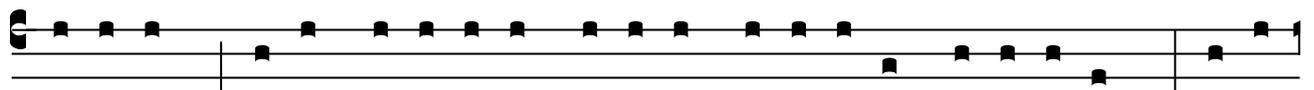
씀이 이루어지려고 이리된 것이다.”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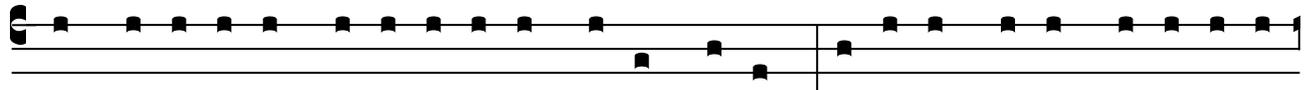
○ ⁵⁰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났다. ⁵¹어떤 젊은이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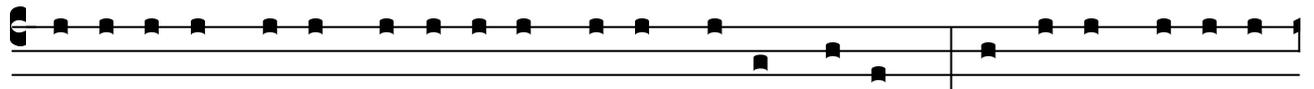
알몸에 아마포만 두른 채 그분을 따라갔다. 사람들이 그를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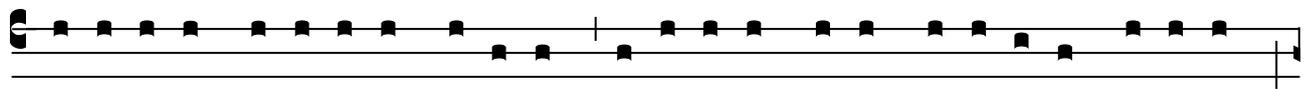
붙잡자, ⁵²그는 아마포를 버리고 알몸으로 달아났다. ⁵³그들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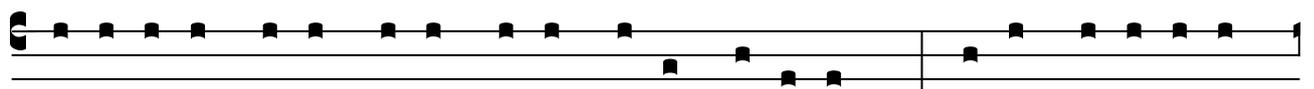
은 예수님을 대사제에게 끌고 갔다. 그러자 수석 사제들과



원로들과 율법 학자들이 모두 모여 왔다. ⁵⁴베드로는 멀찍이



떨어져서 예수님을 뒤따라 대사제의 저택 안뜰까지 들어가,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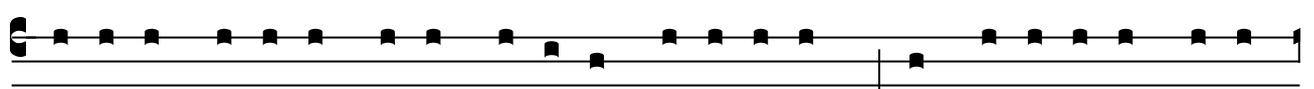
시종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고 있었다. ⁵⁵수석 사제들과



온 최고 의회는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려고 그분에 대한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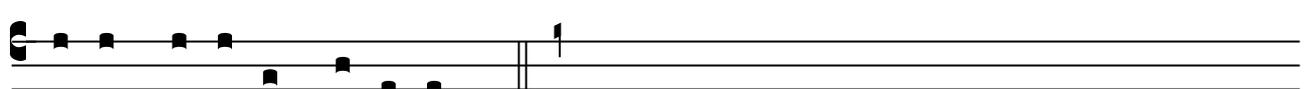
증언을 찾았으나 찾아내지 못하였다. ⁵⁶사실 많은 사람이



그분께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였지만, 그 증언들이 서로



들어맞지 않았던 것이다. ⁵⁷더러는 나서서 이렇게 거짓 증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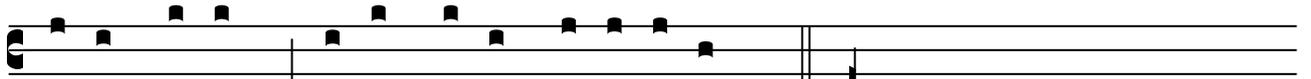
언을 하기도 하였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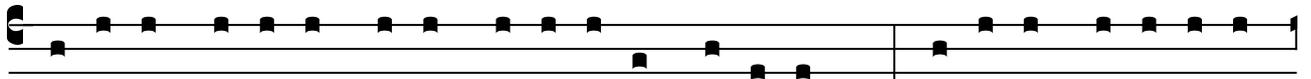
○ ⁵⁸“우리는 저자가, ‘나는 사람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히물고,



손으로 짓지 않는 다른 성전을 사흘 안에 세우겠다.’고 말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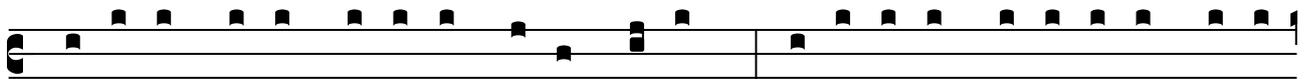
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.”



○ ⁵⁹그들의 증언도 서로 들어맞지 않았다. ⁶⁰그러자 대사제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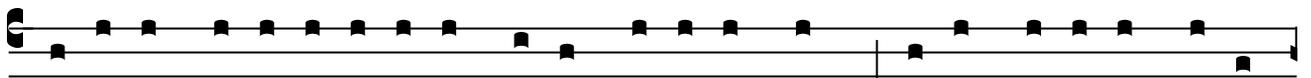
한가운데로 나서서 예수님께 물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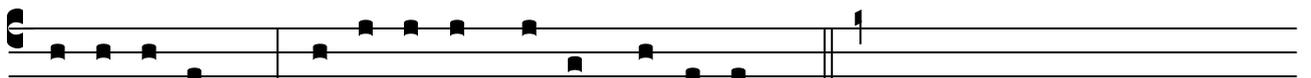
● “당신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소? 이자들이 당신에게 불리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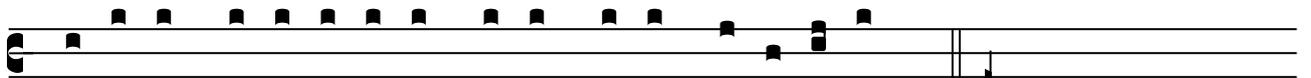
한 증언을 하는데 어찌 된 일리오?”



○ ⁶¹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입을 다무신 채 아무 대답도 하지



않으셨다. 대사제는 다시 물었다.



● “당신이 찬양받으실 분의 아들 메시아요?”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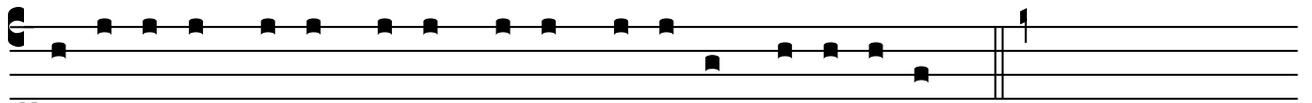
○ ⁶²예수님께서서 대답하셨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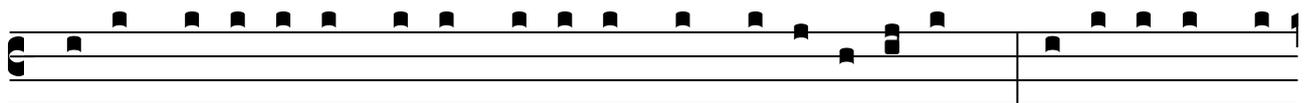
+ “그렇 다. ‘너희는 사람의 아들이 전능하신 분의 오른쪽에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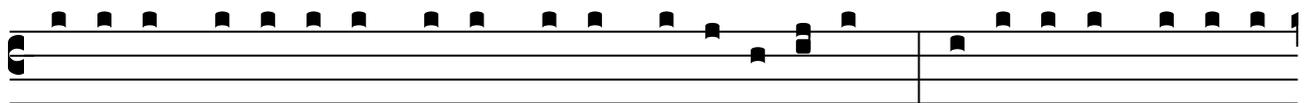
앉아 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.”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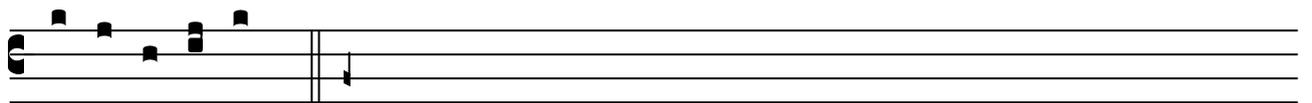
○ ⁶³대 사제가 자기 옷을 찢고 이렇게 말하였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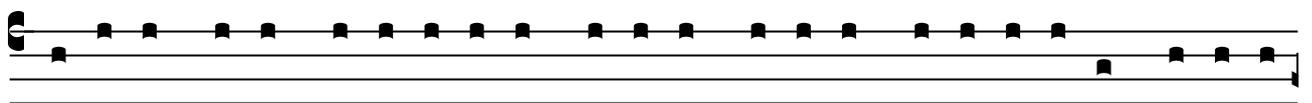
● “이제 우리에게 무슨 증인이 더 필요합니까? ⁶⁴여러분도 하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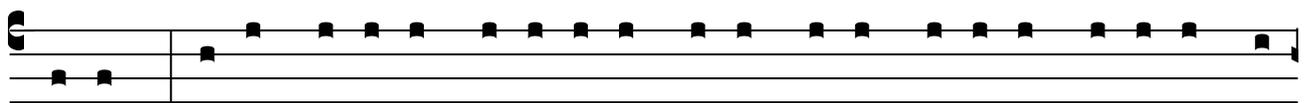
느님을 모독하는 말을 듣지 않았습니까? 여러분의 생각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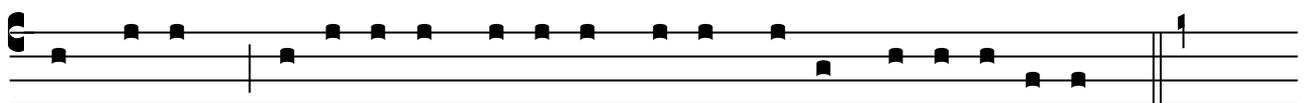
어 똥습니까?”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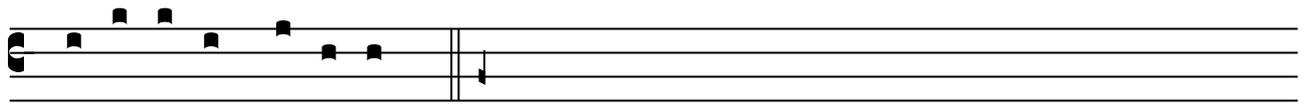
○ 그들은 모두 예수님께서서 사형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단죄하



였다. ⁶⁵어떤 자들은 예수님께 침을 뱉고 그분의 얼굴을 가



린 다음, 주먹으로 치면서 놀려 대기 시작하였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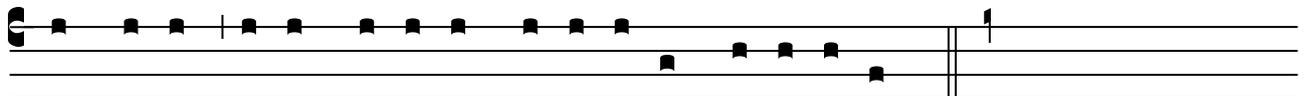
○ “알아맞혀 보아라.”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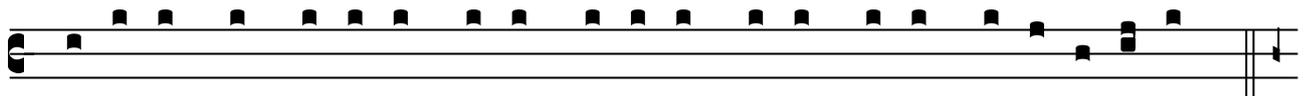
○ 시종들도 예수님의 뺨을 때렸다. ⁶⁶베드로가 안뜰 아래쪽에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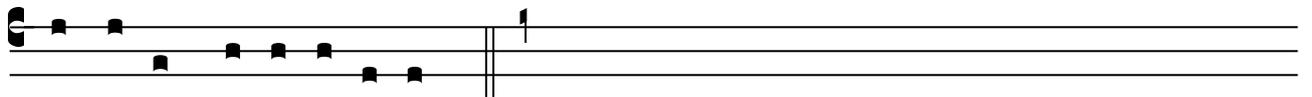
있는데 대사제의 하녀 하나가 와서, ⁶⁷불을 쬐고 있는 베드로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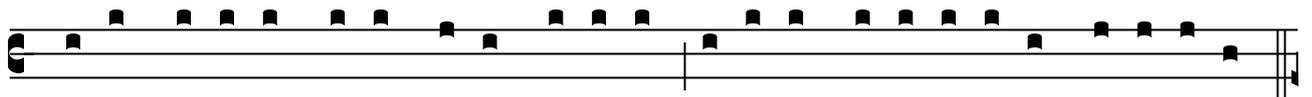
를 보고 그를 찬찬히 살피면서 말하였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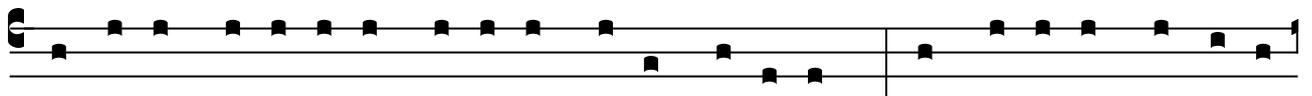
● “당신도 저 나자렛 사람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지요?”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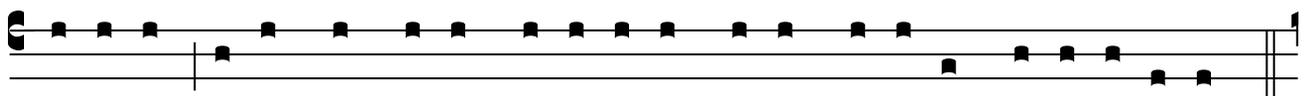
○ ⁶⁸베드로는 부인하였다.



● “나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도 이해하지도 못하겠소.”



○ 베드로가 바깥뜰로 나가자 답이 울었다. ⁶⁹그 하녀가 베드로를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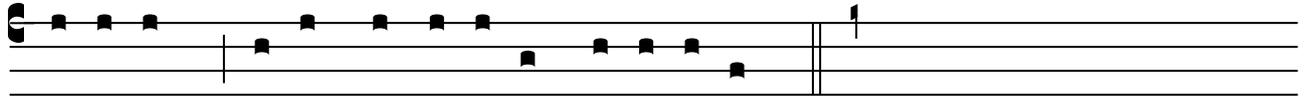
보면서 곁에 서 있는 이들에게 다시 말하기 시작하였다.



● “이 사람은 그들과 한패예요.”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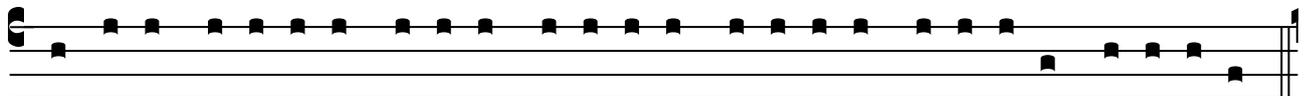
○ ⁷⁰베드로는 또 부인하였다. 그런데 조금 뒤에 곁에서 있던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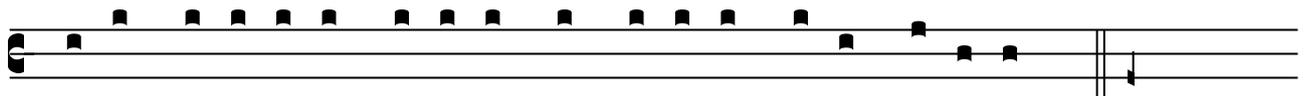
이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였다.



○ “당신은 갈릴래아 사람이니 그들과 한패임에 틀림없소.”



○ ⁷¹베드로는 거짓이면 천벌을 받겠다고 맹세하기 시작하며 말하였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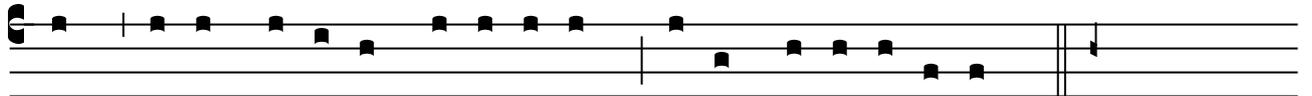
● “나는 당신이 말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.”



○ ⁷²그러자 곧 닭이 두 번째 울었다. 베드로는 예수님께서서, “닭이



두 번 울기 전에 너는 세 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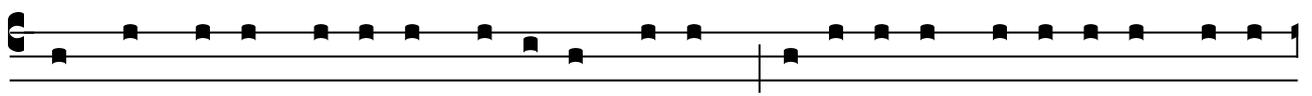


다.”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울기 시작하였다. > 계속 봉독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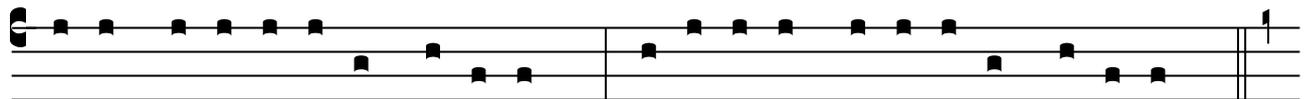
짧은 복음의 시작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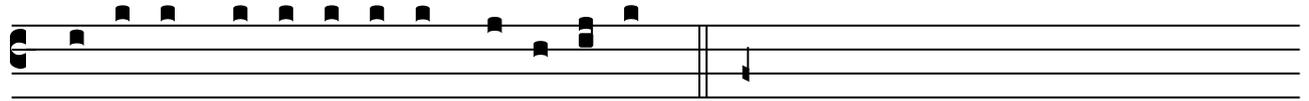
^{15,1}아침이 되자 수석 사제들은 곧바로 원로들과 율법 학자들,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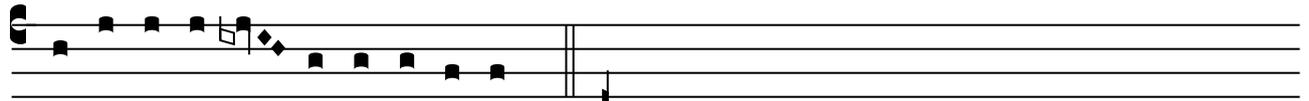
곧 온 최고 의회와 의논한 끝에, 예수님을 결박하여 끌고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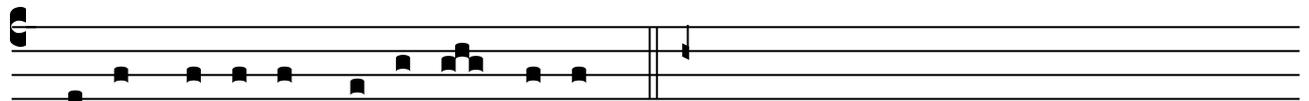
가서 빌라도에게 넌졌다. ²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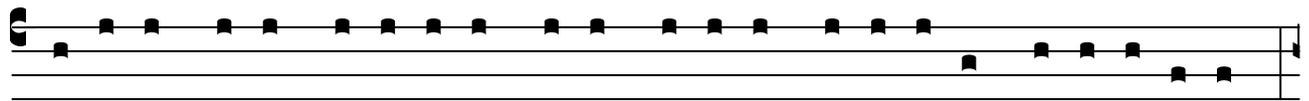
● “당신이 유대인들의 임금이오?”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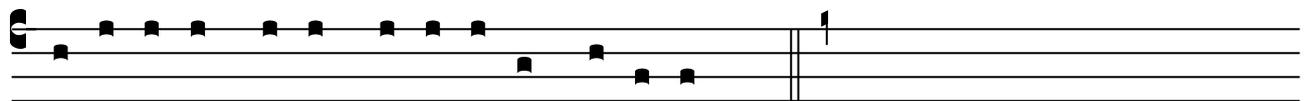
○ 예수님께서 서 대답하셨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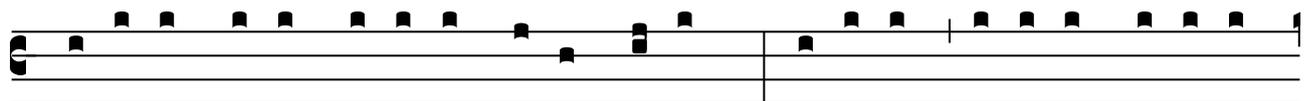
+ “네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.”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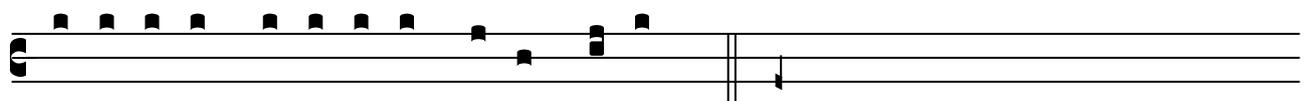
○ ³그러자 수석 사제들이 여러 가지로 예수님을 고소하였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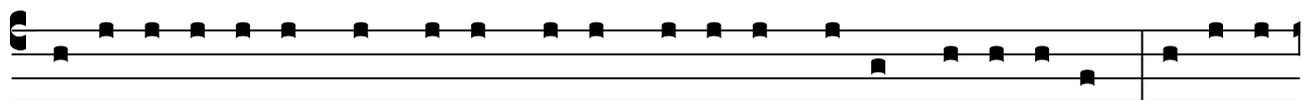
⁴빌라도가 다시 예수님께 물었다.



● “당신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소? 보시오, 저들이 당신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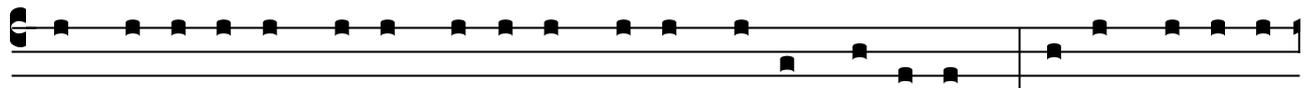
갖가지로 고소하고 있지 않소?”



○ ⁵예수님께서서는 더 이상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. 그래서



빌라도는 이상하게 여졌다. ⁶빌라도는 축제 때마다 사람들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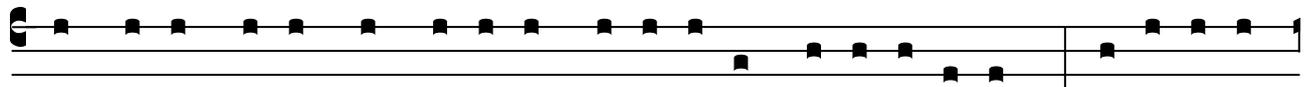
이 요구하는 죄수 하나를 풀어 주곤 하였다. ⁷마침 바라빠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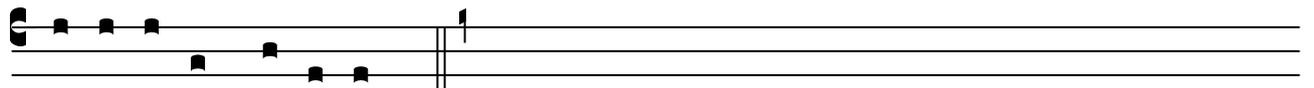
라고 하는 사람이 반란 때에 살인을 저지른 반란군들과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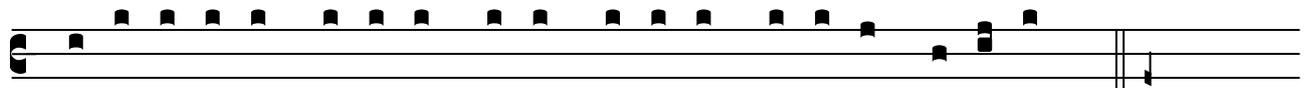
함께 감옥에 있었다. ⁸그래서 군중은 올라가 자기들에게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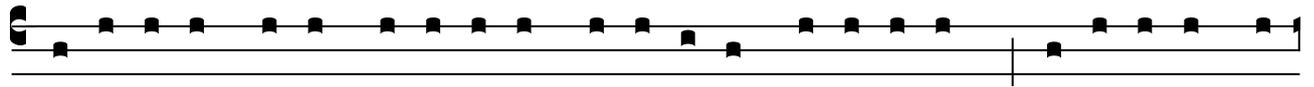
해 오던 대로 해 달라고 요청하기 시작하였다. ⁹빌라도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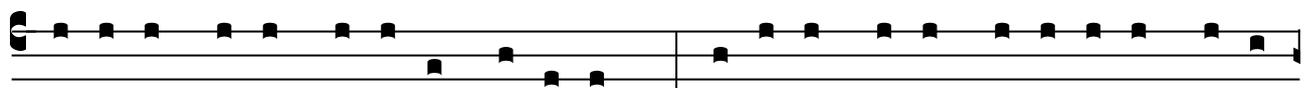
그들에게 물었다.



● “유대인들의 임금을 풀어 주기를 바라는 것이오?”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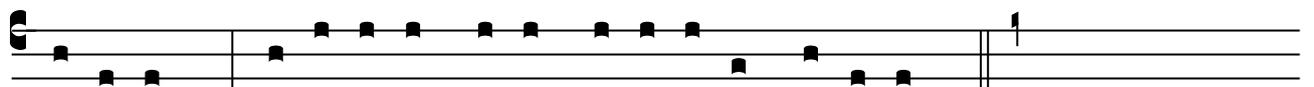
○ ¹⁰빌라도는 수석 사제들이 예수님을 시키하여 자기에게 넘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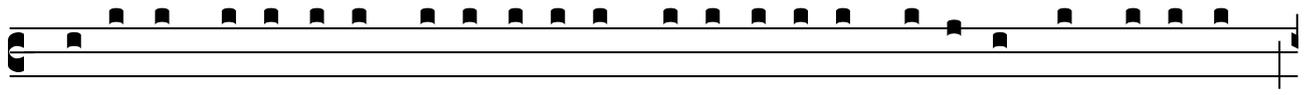
겼음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. ¹¹그러나 수석 사제들은 군중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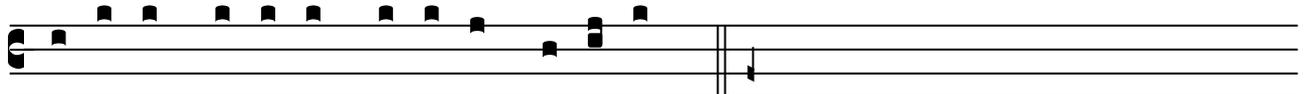
을 부추겨 그분이 아니라 바라빠를 풀어 달라고 청하게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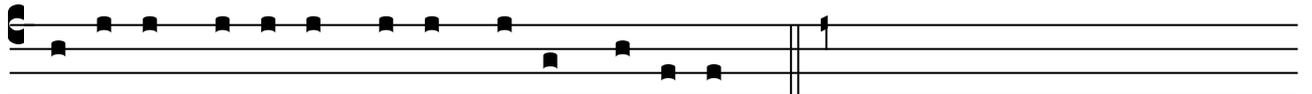
하였다. ¹²빌라도가 다시 군중에게 물었다.



● “그러면 여러분이 유대인들의 임금이라고 부르는 이 사람은



어떻게 하기를 바라는 것이오?”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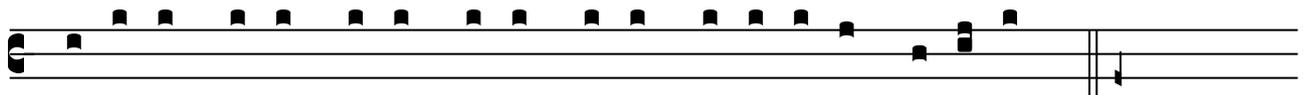
○ ¹³그러자 군중은 거듭 소리 질렀다.

2228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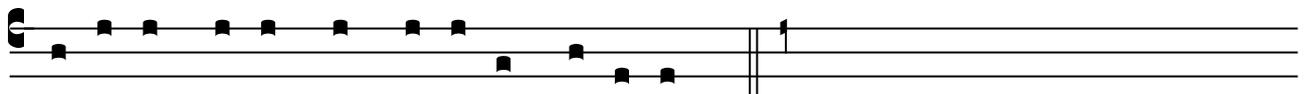
○ "십자가에 못 박으시오!"



○ ¹⁴벨라도가 그들에게 물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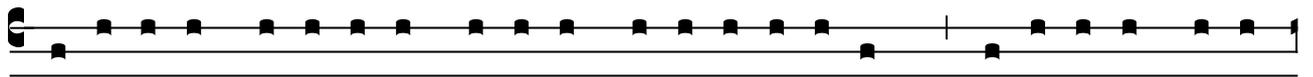


● “도대체 그가 무슨 나쁜 짓을 하였다는 말이오?”



○ 군중은 더욱 큰 소리로 외쳤다.

○ "십자가에 못 박으시오!"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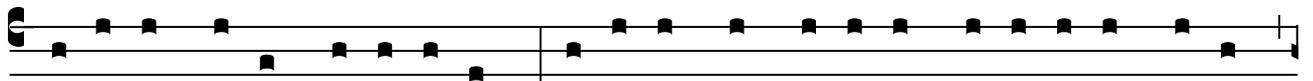
○ ¹⁵그리하여 빌라도는 군중을 만족시키려고, 바라빠를 풀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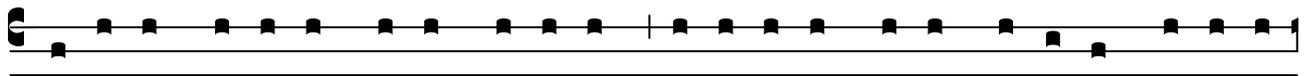
주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게 한 다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



넘겨주었다. ¹⁶군사들은 예수님을 뜰 안으로 끌고 갔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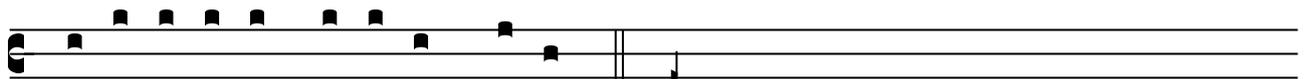
그곳은 총독 관저였다. 그들은 온 부대를 집합시킨 다음,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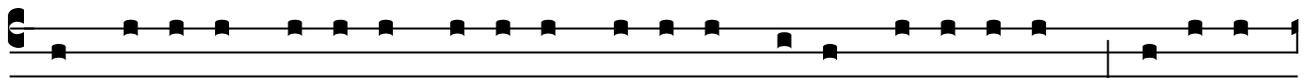
¹⁷그분께 자주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얹어 머리에 씌우고



서는, 이렇게 말하며 인사하기 시작하였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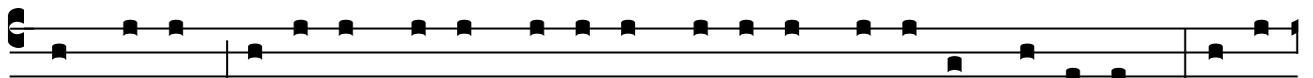
● ¹⁸“유대인들의 임금님, 만세!”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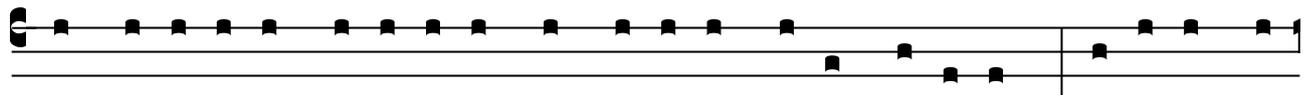
○ ¹⁹또 갈대로 그분의 머리를 때리고 침을 뱉고서는, 무릎을



꿇고 엎드려 예수님께 절하였다. ²⁰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하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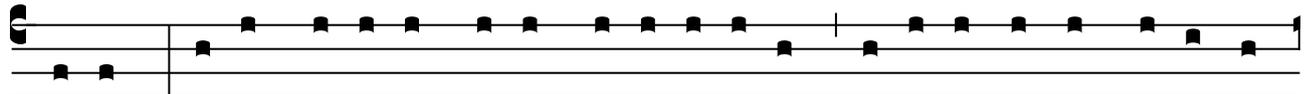
고 나서 자주색 옷을 벗기고 그분의 겉옷을 입혔다. 그리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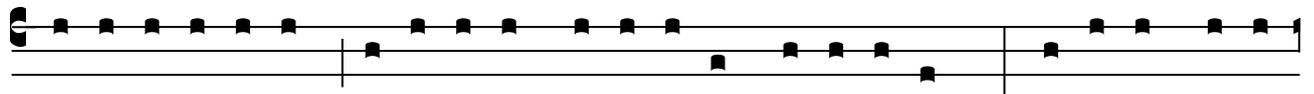
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 끌고 나갔다. ²¹그들은 지



나가는 어떤 사람에게 강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하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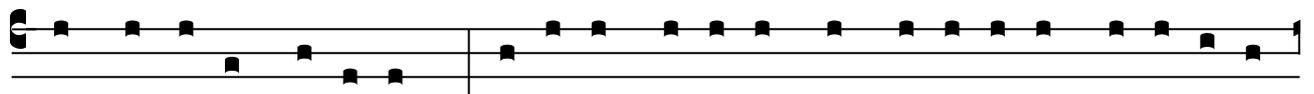
였다. 그는 키레네 사람 시몬으로서 알렉산드로스와 루포스의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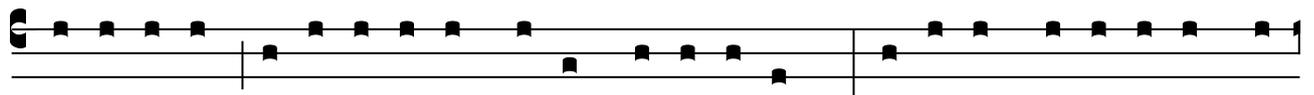
아버지였는데, 시골에서 올라오는 길이었다. ²²그들은 예수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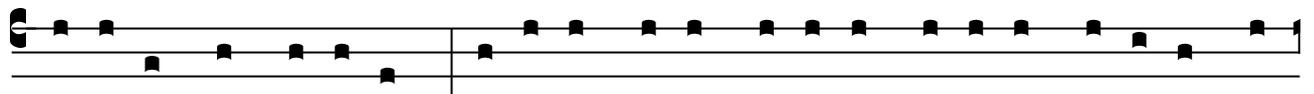
님을 끌고 타라는 곳으로 데리고 갔다. 이는 번역하면 ‘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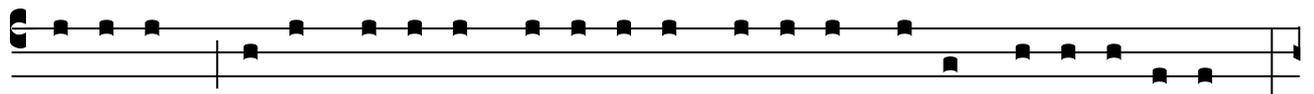
골 터’라는 뜻이다. ²³그들이 몰약을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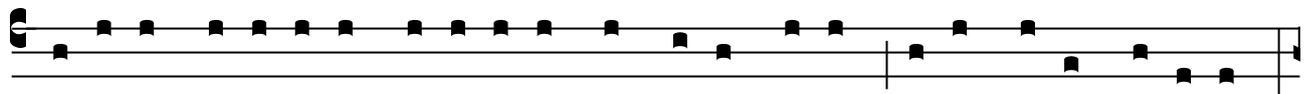
건넬지만 그분께서는 받지 않으셨다. ²⁴그들은 예수님을 십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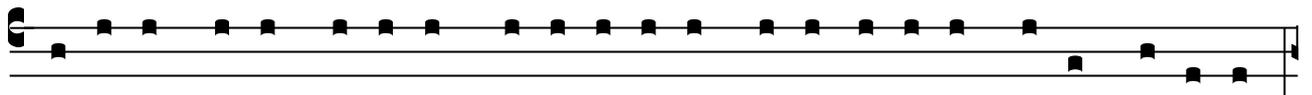
자가에 못 박았다. 그리고 나서 그분의 걸옷을 나누어 가



졌는데 누가 무엇을 차지할지 제비를 뽑아 결정하였다.



²⁵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때는 아침 아홉 시였다.



²⁶그분의 죄명 때에는 '유대인들의 임금'이라고 쓰여 있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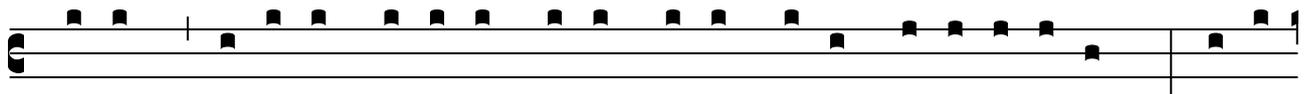
²⁷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강도 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,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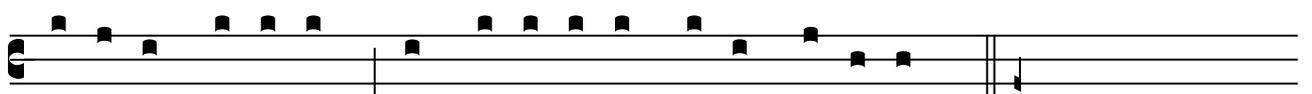
하나는 오른쪽에 다른 하나는 왼쪽에 못 박았다. ^{(28)·29}지나가



는 자들이 머리를 흔들며 그분을 이렇게 모독하였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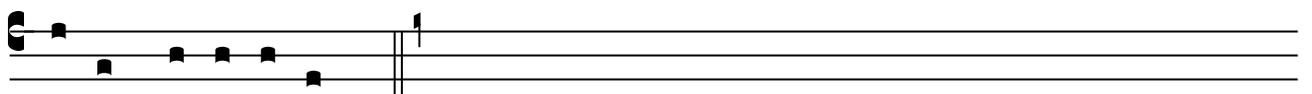
⊙ “저런! 성전을 허물고 사흘 안에 다시 짓겠다더니. ³⁰십자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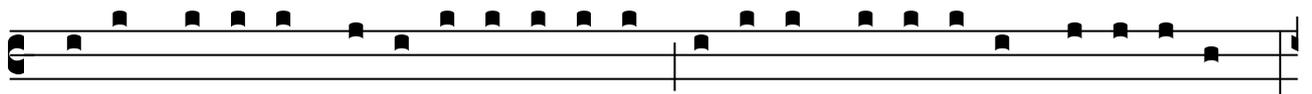
가에서 내려와 너 자신이나 구해 보아라.”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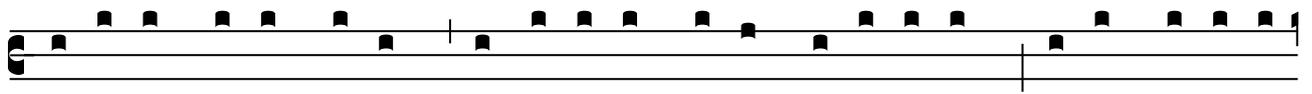
○ ³¹수석 사제들도 이런 식으로 율법 학자들과 함께 조롱하며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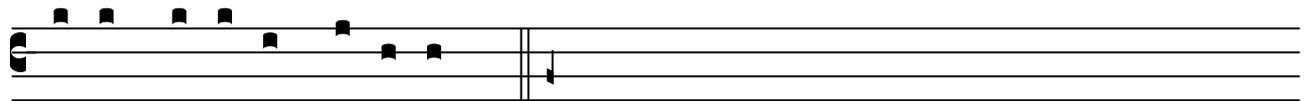
서로 말하였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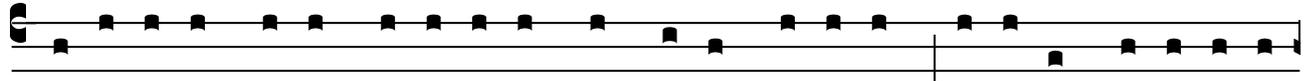
⊙ “다른 이들은 구원하였으면서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군.



³²우리가 보고 믿게, 이스라엘의 임금 메시아는 지금 십자가



에서 내려와 보시지.”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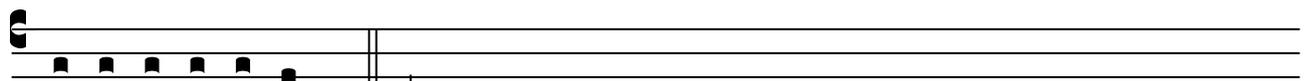
○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그분께 비아냥거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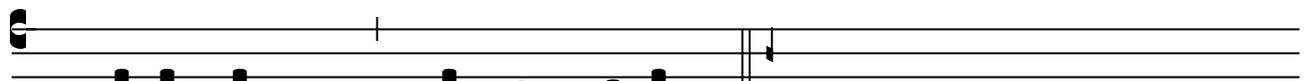
렸다. ³³낮 열두 시가 되자 어둠이 온 땅에 덮여 오후 세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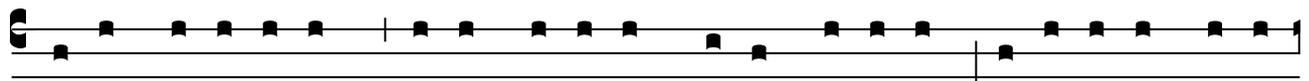
시까지 계속되었다. ³⁴오후 세 시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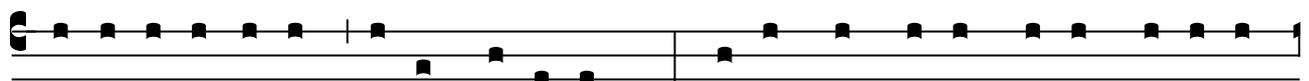
부르짖으셨다.



+ “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타니?”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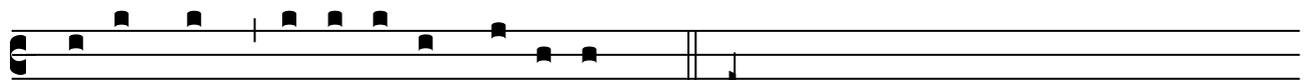
○ 이는 번역하면, ‘저의 하느님, 저의 하느님, 어찌하여 저를



버리셨습니까?’ 라는 뜻이다. ³⁵겔에 서 있던 자들 가운데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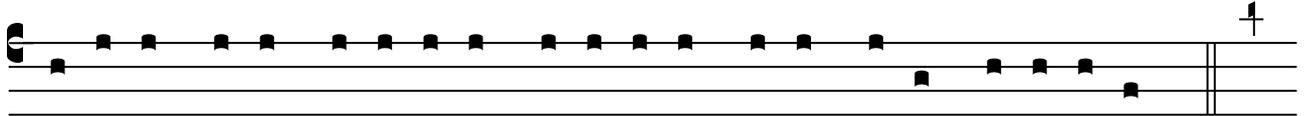
몇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하였다.



⊙ “저것 봐! 엘리야를 부르네.”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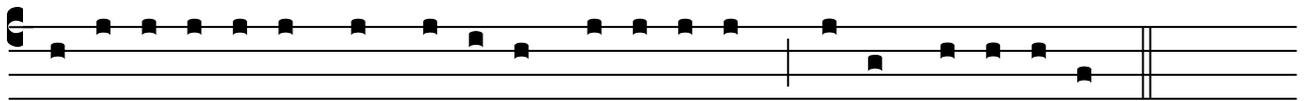
○ ³⁶그러자 어떤 사람이 달려가서 해변을 신 포도주에 적신 다음,



갈대에 꽃아 예수님께 마시라고 갖다 대며 말하였다.



● “자,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 주나 봅시다.”



○ ³⁷예수님께서서는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셨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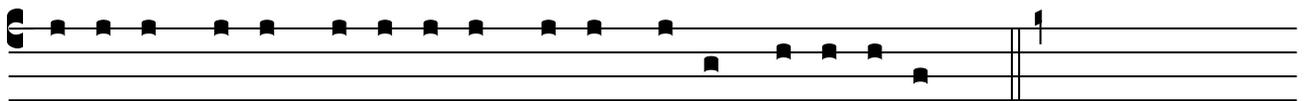
무릎을 꿇고 잠깐 묵상한다.



○ ³⁸그때에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갈래로 찢어졌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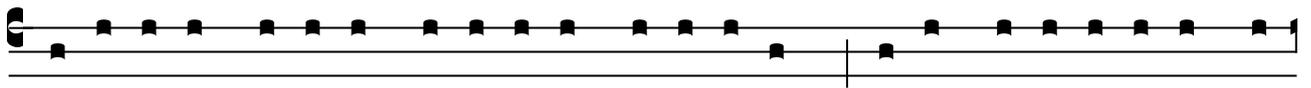
³⁹그리고 예수님을 마주 보고 서 있던 백인대장이 그분께서



그렇게 숨을 거두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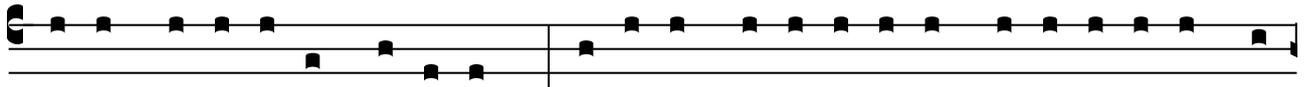
● “참으로 이 사람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셨습니다.”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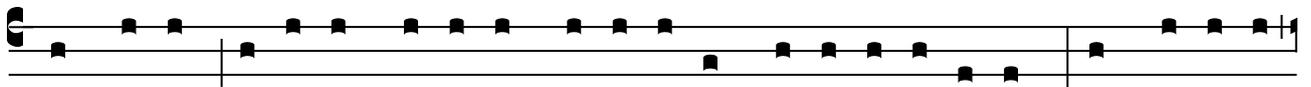
○ <⁴⁰여자들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는데, 그들 가운데에는 마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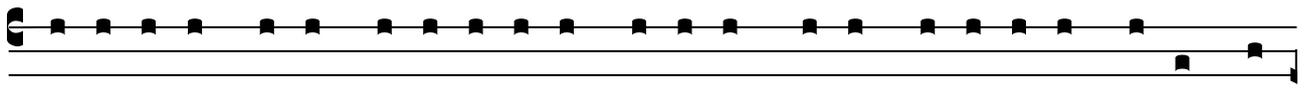
리아 막달레나, 작은 야고보와 요세의 어머니 마리아, 그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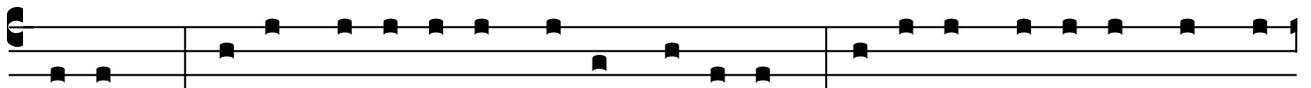
리고 살로메가 있었다. ⁴¹그들은 예수님께서 갈릴래아에 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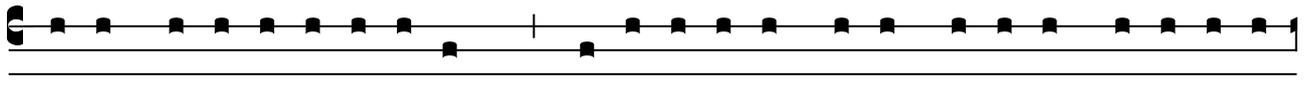
실 때에 그분을 따르며 시종들던 여자들이었다. 그 밖에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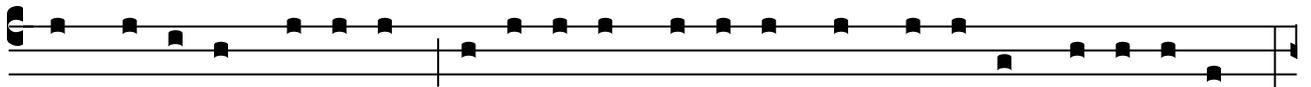
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다른 여자들도 많이 있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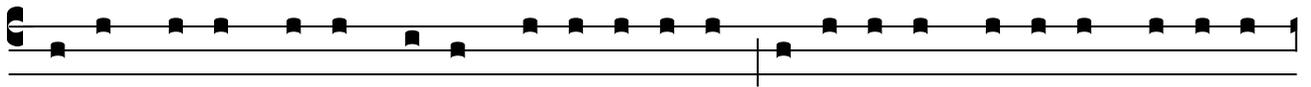
었다. ⁴²이미 저녁때가 되어 있었다. 그날은 준비일 곧 안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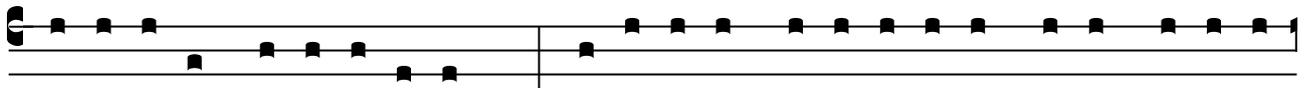
식일 전날이었으므로, ⁴³아리마태아 출신 요셉이 빌라도에



게 당당히 들어가, 예수님의 시신을 내 달라고 청하였다.



그는 명망 있는 의회 의원으로서 하느님의 나라를 열심히



기다리던 사람이었다. ⁴⁴빌라도는 예수님께서 벌써 돌아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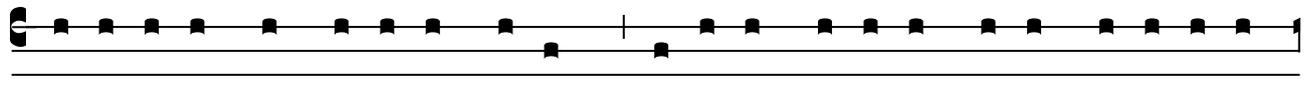
셨을까 의아하게 생각하여, 백인대장을 불러 예수님께서서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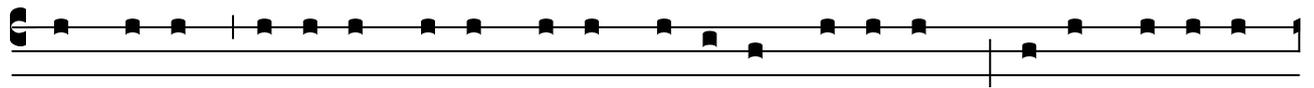
돌아가신 지 오래되었느냐고 물었다. ⁴⁵벨라도는 백인대장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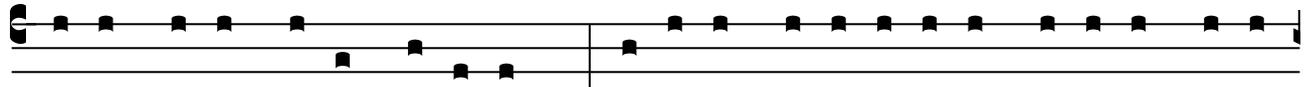
에게 알아보고 나서 요셉에게 시신을 내주었다. ⁴⁶요셉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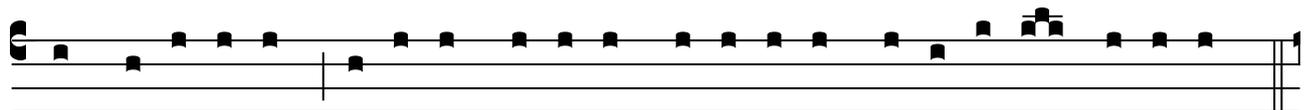
아마포를 사 가지고 와서, 그분의 시신을 내려 아마포로



싼 다음 바위를 깎아 만든 무덤에 모시고, 무덤 입구에



들을 굴러 막아 놓았다. ⁴⁷마리아 막달레나와 요세의 어머



니 마리아는 그분을 어디에 모시는지 지켜보고 있었다.>



주님의 말씀입니다.

◎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.

